

익산시, '생태관광 메카' 부상

금마 일대 생태학습원 · 놀이터 등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자연 · 사람 공존하는 도시 조성

익산시가 쾌적한 자연 생태계를 활용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내 대표 생태관광 메카로 도약한다.

특히 끊임없는 복원 노력으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보호 생물이 곳곳에서 관찰됨에 따라 이들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왕궁 주교제와 만경강 등이 다양한 생태 보고로 변화하면서 이를 복원하는 사업과 관광·체험 프로그램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금마 구룡마을 대나무 숲의 '운문산 반딧불이'와 금마저수지의 '원앙'을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종으로 정하고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지난날 서동농촌테마공원 내 생태학습원, 놀이터 등 생태관광기반 시설 공사에 착공했으며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1시간 1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도비 75%를 지원받아 총 28억원이 투입됐다.

생태학습원에는 방문자 안내와 교육 공간을 마련해 환경보전을 위한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생태놀이터 조성 등을 통한 어린이들의 오감만족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더불어 동산동에 위치한 대래못 금개구리·맹꽁이 서식처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비 4억8천만원과 시비 5억원 등 총 10억여원이 투입되며 올해 7월 착공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가 될 수 있도록 생태습지 조성과 식이식물 식재,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생태 공간 등이 조성된다.

앞서 시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보호 생물이 곳곳에서 관찰되면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생태도시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21년 실시된 만경강 조류 모니터링에서 세계적 희귀 조류인 황새와 저어새를 비롯한 20여종의 멸종위기 및 천연기념물 종이 관찰되었으며 천연기념물 수달은 만경강 상당포구, 왕궁 주교제 등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시가 과거 만경강 오염원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왕궁 특수지 현암 및 휴·폐업 축사를 10여년 간 정비해온 결과 이제는 다양한 생태 보고로 재탄생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정현을 시장은 "과거 일제강점기 만경강의 직강(直江)화 사업 이전의 흔적을 찾아 지속적으로 생태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복원사업을 추진한 계획이다"며 "이를 토대로 익산을 생태관광 1번지로 변모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을 빛낸 '익산시민대상' 지역을 빛낸 '익산시민대상'

심사위원회서 4인의 수상자 선정... 10일 익산시민의 날 수여

익산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익산 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부문 4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민대상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와 헌신적인 시민을 찾아 수여하는 상으로 1996년 제1회를 시작 28회째를 맞이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된 익산시민대상은 부문별로 △산업대상 송호용(62) △사회봉사대상 정진정(59) △효행대상 최이레(70) △친환경대상 김석태(69) 등 4인이다.

송호용 산업대상 수상자는 (주)신흥설비 대표이사로서 30여년간 건설/설비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의 주요 주거공간 및 공공시설을 시공해 온 베테랑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정진정 사회봉사대상 수상자는 익산

시 자율방범대 사무국장으로 20여년간 치안유지 방범활동, 청소년 보호활동,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남다른 봉사활동을 전개해 지역의 큰 귀감이 되었다.

또한 최이레 효행대상 수상자는 팔봉동 부녀회원으로 과거의 어려운 상황에서 놓인 조카 2명을 입양하여 친자 식처럼 길러냄과 동시에 1973년 결혼 후 시부모와 동거하며, 현재까지 시부를 정성껏 모시며 효를 실천했다.

김석태 친환경대상 수상자는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익산시협의회 회장으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자연보호운동 저변확대와 환경친화적 지역 풍토 조성에 앞장섰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총 7개 부문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문화체육 대상, 농업대상, 교육대상의 세 부문에서는 수상 자격자가 없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대식 익산부시장, 숲체험원 · 하수시설 안전점검

익산시가 유아 등 안전 취약계층의 시설과 시민 생활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전대식 부시장은 집중안전점검 관련 부서 공무원과 건축, 소방 전기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옹포 곰돌이 유아숲체험원과 익산북부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우선 옹포 산림문화체험관 인근에 3천평 규모의 야외체험학습장인 옹포곰돌이 유아숲체험원을 방문해 어린이 이용객이 급증하는 숲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나섰다.

특히 주 이용층이 안전 취약계층인 유아들이 만큼 안전 점검 수준을 더욱

강화해, 숲밧줄놀이, 목재그네, 숲속교실, 경사놀이터와 트리하우스, 대피소, 닭장·토끼장 등 생태체험원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세세하게 점검했다.

이와 함께 황등면으로 이동해 환경시설인 북부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북부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이 두 번째로 큰 시설로 2008년 황등면에 준공돼 일일 평균 2만톤의 익산 북부지역 하수를 처리한다.

합동점검에 참여한 전대식 부시장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요 구조부와 마감상태 등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 걷기행사 개최

군산시치매안심센터가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4일 까지 2023 한바람 치매극복 걷기행사-치매 애(愛) 희망을 나누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일상을 걷기운동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 예방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참여를 위해 워크온 앱을 사용한 비대면 온라인 참여와 월명공원에서 개최되는 대면 행사 참여 모두 가능하다.

대면 행사 참여는 월명공원에서 오

는 12일 오전 9시~12시에 진행되며 행사 당일 접수 가능하다. 치매예방체조와 더불어 건강체험부스가 운영되며, 월명공원 수변로를 중심으로 건강코스를 완주해 구간별 스티커를 획득한 참가자에게는 선착순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또한 '워크온 앱'을 이용한 온라인 참여는 오는 8일부터 14일 운영되며, 군산시 걷기 공식 커뮤니티 가입 후 '한바람 치매극복 걷기 챌린지'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7일간 하루만 보 제한, 5만보 걸기를 달성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군산시방상품권이 증정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청소년 · 지역사회 미디어 제작활동 활성화 상호협력

군산시, 콘텐츠팩토리-청소년자치연구소 협약 체결

군산시가 청소년과 지역사회 미디어 제작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자치연구소(소장 정건희)와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박홍순 문화예술과장,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장을 비롯해 청소년자치연구소 미디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청소년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지역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과 마을이 함께하는 콘텐츠 제작에 상호협력하고 지역 미디어 발전과 콘텐츠제작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발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소년자치연구소는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라달그라'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진로활동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청소년 기자단 작가단, 방송, 진로 관련 청소년자치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다

양한 위원회와 자원활동가들이 연대하여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미디어위원회는 마을방송, 우리마을영상제, 미디어 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담아내는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콘텐츠 창작·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인 군산콘텐츠팩토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 장비와 시설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미디어 제작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콘텐츠팩토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 영화, 영상, 소프트웨어, 웹툰 등을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기업 대표들이 청소년자치연구소의 미디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하고 있는 것도 이번 업무협약 체결의 밑거름이 되었다.

박홍순 문화예술과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를 다양한 콘텐츠로 구현해 내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팩토리를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은 "콘텐츠팩토리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미디어 아카데미와 영상제, 마을방송 등의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가 청소년과 지역사회 미디어 제작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자치연구소(소장 정건희)와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

군산시는 3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억 5,300만원을 확보했으며, 그동안 군산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 국비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입소 대기 중인 장애인 가운데, 욕구조사를 통해 탈시설 의지가 확고한 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20명까지 사업을 늘려갈 예정이며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자립지원 인력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자립적응금, 활동지원서비스 등 통합 서비스가 지원된다.

익산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

익산시가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수행한다.

시는 3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2023년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2024년까지 주거·일자리·건강 등 복합 서비스 지원 모형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2025년 보건복지부가 추진 예정인 장애인 입소자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가정시설' 탈시설 지역사회 거주지원 사업에 앞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2년간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고 세부적인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하는 등 제도 및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